

# 시대가 통합논술을 부른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수시 입학 전형을 전후하여 학교 현장이나 학원가에서 논술 열풍이 불고 있다. 논술이 대학 입학의 관건이 되자, 입시철이 되면 학원가에서는 1주일에 수십만 원씩 하는 논술 강좌가 개설되고, 심지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논술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대체 논술이란 무엇이며, 논술 능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 글에서는 논술 교육의 근본 취지와 함께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글\_ 권영부 동북고등학교 통합논술팀장, <통통 통합논술> 저자

## 사회의 변화를 보면 통합논술이 보인다

1990년대 이전의 우리사회는 암기를 중시했다. 군사정권 시기였기에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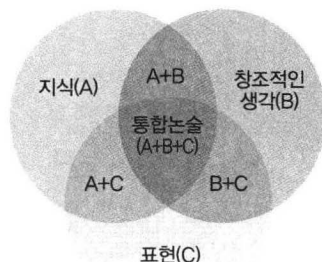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글과 말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써의 표현을 중시하는 논술이 대학입시의 평가 방법으로 등장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말로서의 표현을 중시하는 구술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논술과 구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논술은 그 특성상 지원자와 평가자가 원고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만난다. 때문에 원고지에 서술된 내용 이외의 숨은 뜻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예를 들어보자. 안락사의 윤리성에 대해 어떤 학생이 안락사를 옹호하는 근거들만 제시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이를 답안에 포함시킬 경우에 수습할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생략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술의 폐쇄성을 극복하려면 구술 면접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논술에 이어

구술이 평가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술과 구술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자의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로 한 교과 중심의 단면적 평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은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을 겸비한 인재를 원한다. 당연히 대학에서도 이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는 통합논술로써 가능하다.

## 지식과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표현의 만남을 요구하는 통합논술



통합논술은 '랑콩트르(Rencontre : 만남)'를 요구한다. 세상은 지식 체계들을 분절된 상태로 둘 것

이 아니라 체계 사이의 벽을 허물어 '랑콩트르'하기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랑콩트르는 어떤 만남이어야 할까?

첫째, 지식(교과)과 지식(교과)의 만남(A)이어야 한다. 지식과 지식의 만남을 고등학교 단위로 본다면 개별 교과와 교과의 만남이다. '영역 전이'를 통해 한 교과의 내용을 다른 교과에 접목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수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사회 교과에, 체육에서 익힌 내용을 물리 교과에 영역 전이하다 보면 통합논술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표현과 표현의 만남(C)이어야 한다. 이것은 논술과 구술의 만남을 뜻한다. 논술의 폐쇄성과 구술의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통합논술이다. 글로서의 문자적 표현과 말로서의 음성적 표현이 만나야 진정한 통합이 된다. 다시 말해, 개인적 차원의 글쓰기는 물론 준비 과정의 여럿이 함께하는 토론 과정에서 수반되는 논리적인 말하기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 통합논술이다. 통합논술은 논술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구술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만남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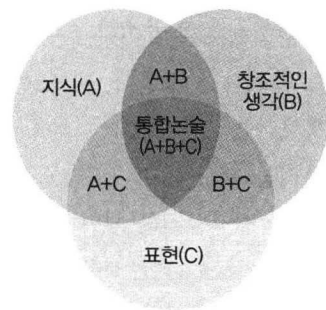
셋째, 창조성과 창조성의 만남(B)이어야 한다. 이는 아날로그적 창조성과 디지털적인 창조성의 만남을 뜻한다. 인간의 창조성은 아날로그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대의 상상력은 그저 아날로그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아날로그적 상상력이 디지털과 결합되어야 국부(國富)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해리 포터'라는 이야기 구조가 영화 산업의 디지털과 결합되어 엄청난 국부가 창출되고 있음을 보면 짐작될 것이다.

랑콩트르를 통해 창출된 지식(A+B+C)은 기존의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랑콩트르를 통해 창출된 지식은 기존의 지식(Knowledge)이 아닌 새로운 스마트(Smart)다. 스마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는 비판적 사고와 창조성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읽은 《렉서스와 올리브나

무》의 저자 프리드먼은 미래에 우리는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이라는 말 대신 '지식(smart) 국가, 지식우위(smarter) 국가, 최고위 지식(smartest)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앞의 그림을 잘 생각하면 통합논술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C)는 창조적인 생각이 결합된 상태이고, (A+B)는 표현력이 미흡한 상태다. 또 (B+C)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결국 통합논술은 온전하게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만만찮은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지식과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표현의 만남'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교과 내용)을 제대로 읽고 창조적으로 생각하여 글쓰기로 표현하면 통합논술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읽기, 생각하기, 쓰기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 곧 통합논술이다. 통합논술을 위해 학교 교육이 혁명적으로 변할 필요는 없다. 단, 교과 사이의 벽을 허물어 다른 교과와 소통하게 한다는 의식의 변화는 있어야 한다.

통합논술을 학교 안으로 당당하게 끌어들이자.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불 보듯 뻔하다. 힘도 들 것이고, 공력에 비해 보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논술을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한번 실천해보자. ☞